

보도와 외설 사이

Column



글.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수습기자 시절이었다. 외신부 수습 당시, 부장이 수백 장의 외신사진 견본이 있는 대장을 가져와서 “오늘 해외토픽 사진을 골라보라”고 했다. 증명사진 크기 정도의 사진들이 빼곡한 그 대장에서 한 장을 골랐다. 그런데 다른 선배들은 대부분 다른 사진을 찍는 거였다. 웬 여자가 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진. 나는 그 민망한 사진에 반대했지만 결국 해외토픽은 그걸로 결정됐다.

놀란 건 다른 신문들이 배달된 후였다. 다른 신문들의 해외토픽에도 모두 같은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수백 장의 사진 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걸 골랐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학생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문에 대한 오해가 한꺼번에 깨지기도 했다. 그 오해란 신문 내용이 엇비슷한 건 신문사들이 정부가 지정해주는 '보도지침'에 따라 그대로 신문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건 기뻐지만, 토픽사진을 골라내는 동일한 안목에 대한 의문은 남았었다.

‘벌거벗은 사람’들에 대한 미디어의 호감은 여전하다. 대놓고 선정적 사진이 실리는 옐로우 매체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주요 일간지들에도 수시로 옷 벗은 사진이나 옷 벗는 얘기가 실린다. 나체 시위와 퍼포먼스, 반라의 패션쇼, 용감하게 옷 벗은 예술가들의 이야기, 가슴을 흰히 드러내고 포토타인에 선 여배우, 외설시비에 휘말린 사건이나 사진에 관한 후속 보도 등. 외설 혹은 선정성 시비를 피해갈 수 있는 알 권리 등의 명분과 기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기사와 사진엔 독자가 몰린다. 그렇다 보니 미디어를 편집하는 입장에서 이런 보도의 매혹을 뿌리칠 수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온라인 편집국장 당시 러시아 프리다이버 아브세옌코 박사가 북극에 사는 흰 돌고래와 교감을 실험하기 위해 알몸으로 북극바다에 뛰어든 사진을 찾아내 우리 온라인 판의 메인사진으로 걸었던 적이 있다. 당시 북극바다의 수온은 영하 2도였다.

이 사진은 강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영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보도가치가 있는 대표적인 훌륭한 콘텐츠였다. 이후 다른 인터넷매체들도 모두 받아서 자기 사이트에 걸었고, 다음날 주요 일간지들이 이를 1면 사진으로 실었으며, 얼마 후 우리 기자가 아브세옌코 박사를 전면 인터뷰했고, 또 얼마 후엔 그녀가 우리나라에 초청을 받아 와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 사진의 보도가치는 그만큼이었다. 동물과의 교감을 위해 영하 2도의 북극바다에 뛰어든 것도 용기 있는 도전이었다. 하지만 잠수복을 입고 뛰어들었다면 보도거리가 안 된다. 옷을 모두 벗었다는 점, 이것이 극적인 보도 포인트였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 보도가치를 끌어낸 이 포인트는 또 하나의 시비 거리를 제공했다. 이 사진은 선정성 시비에 걸렸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신문 기사를 매개하는 캐스트를 운영하고, 온라인매체들은 캐스트에 9개 정도의 기사 제목을 노출해 독자들에게 서비스한다. 그리고 네이버는 거기에 걸린 기사들을 놓고 선정성을 판정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이 기사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선정적’이라며 이익을 제거한 것이다.



그 모니터링단은 '알몸'이라는 단어와 옷을 벗은 사진은, 그게 무엇이든 선정적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곤 했다.

미디어들은 보도가치가 있는 나체 영상을 찾아다니고, 한 편에선 이렇게 '옷 벗는 건 무조건 선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성스럽게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며, 모두에게 옷을 입히려 한다. 이들의 감시의 눈길은 미디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얼마 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갤러리 옥상에 영국 조각가가 만든 '벌거벗은 남자'라는 고가의 작품을 설치하자 주민들이 작품에 옷을 입히거나 가려두라고 요청해 애먹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일본 시마네현에 있는 한 소도시에서도 이 지역 출신의 사업가가 기증한 다비드상과 비너스상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다. 민망하니 속옷을 입혀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집요한 요청 때문이었다. 물론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는 데에는 이런 사람들의 기여가 한몫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데 옷 벗은 사진은 민망하다고만 보았던 풋내기 수습 기자에서 벗어나 오랜 시간 관련 콘텐츠를 보면서 느낀 건 인간이 옷을 벗는 행위는 단순히 눈요기, 관심, 선정성, 외설 등의 표피적 언어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관중 소설 『삼국지』에는 '예형'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땃줄을 끊으면서부터 신동이었으나 세상을 욕하고 막말하는 걸로 한 세월을 보내다 25세에 남의 손에 죽은

천재다. 역사에 기여한 바 없이 잠시 세상에 다녀갔던 이 천재는 그러나 소설에서 꽤 길게 다루어진다. 이런 기행의 천재가 한돌이 아니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만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까.

나는 그 이유를 그가 저항의 방식으로 채택했던 '나체 시위'에서 찾는다. 그는 조조가 자신을 복치는 사람으로 고용하자 연희 자리에서 옷을 훌렁 벗고 복을 치며 시위한다. 그가 나체시위의 원조일 거다. 그는 옷 한 번 벗은 걸로 잊힐 뻔했던 이름을 일으켜 세웠다.

옷 벗는 사람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인간에게 옷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과 옷을 벗은 사람을 훑쳐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는 행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아브세렌코 박사가 옷을 벗어던지고 북극의 바다에 뛰어들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어디선가 동물과의 교감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말이다.

인간이 옷을 벗는 건 종립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그것이 표현될 때는 논란의 한 가운데 선다. 예술이나 외설이냐, 보도의 가치가 있는가 선정적 눈요기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일단 그 행위가 음란한 상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옷을 음란한 동기에서만 벗지는 않는다. 옷 벗은 사람을 음란하게만 보려는 시각을 거두고, 그들의 몸짓을 보려 한다면 더 많은 인생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텐데...